

눈 사라진 겨울... 12월 절반이 '雨요일'

광주평균기온 5.5도...10년래 최고
11·12월 누적 적설량 1.6cm
첫눈도 전년보다 18일 늦어
지구 온난화에 눈구경 힘들어



“이 비가 눈이었으면...” 겨울비가 내린 26일,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에서 우산을 쓴 학생들이 교정을 걷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눈은 언제 내리나요?” 박남우(8)군의 올 겨울 소원은 하얀 눈을 맞으며 눈싸움을 하는 것이다.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산타할아버지에게 “자고 일어나면 눈이 쌓여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다. 하지만 남우의 소원과 달리 올 겨울 눈은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다. 기다리는 눈 대신 겨울비만 연일 쏟아지고 있다. 광주에선 이달에만 15일이나 비가 관측됐다.

올 겨울 광주지역엔 17년 만에 가장 적은 양의 눈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광주지역 누적 적설량은 1.6cm에 불과하다. 2000년(1.5cm) 이후 가장 적은 양으로 시민들의 입에서는 “눈이 실종됐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10년(2006~2015년)간 광주지역의 11~12월 누적 적설량 평균은 30.28cm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눈이 내린 해는 2007년 42.7cm, 가장 적게 내린 해는 지난 2011년 10cm다.

올해 같은 기간 적설 기록(눈이 쌓인 날)도 1일에 불과, 최근 10년 평균(7.6일)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12월 한 달간 무려 16일이나 눈이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올해는 첫눈도 지각을 했다. 지난 14일 광주에서 관측된 첫눈은 평년(1981~2010년)에 비해 무려 19일, 지난해에 비해 18일이나 늦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청은 최근 10년간 광주지역에서 가장 늦게 관측된 첫눈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기상청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눈이 내리기 힘들어 겨울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10년간 광주의 12월 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6.8도, 최고기온은 14.8도, 평균기온은 3도로 집계됐다. 반면 올해 12월 1~25일 평균 최저기온은 영

하 3.3도로 2007년(영하 3.2도)에 이어 가장 높고, 최고기온은 17.3도로 최근 10년 중 3번째로 높은 온도를 기록하고 있다. 평균기온은 5.5도로 최근 10년 중에서 가장 높고, 평년(3.5도)과 비교해도 무려 2도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강수량은 27일로, 최근 10년 평균(2.8일)과 비슷한 수치다.

반면 강수량은 지난 25일까지 64.6mm로, 최근 10년 평균(103.75mm)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가 적게 내린데다가 기온까지

따뜻해 눈을 좀처럼 보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북극에서도 평년보다 20도 이상 높은 기온이 나타나는 등 전 지구적으로 올 겨울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며 “복합적인 기상현상의 영향 때문이겠지만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겨울철 기온이 상승한 탓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상청은 내년 1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0 몰림 05:29
해질 17:28 달림 16:08

전날 밤 날씨
대체로 흐리고 새벽 한 때 비 또는 눈이 오겠고 오후에는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비/눈온후	3/5	보성	비/눈	3/5
목포	호린뒤	3/4	순천	비/눈	3/6
여수	비/눈	4/6	영광	호린뒤	2/4
나주	비/눈온후	2/5	진도	호린뒤	4/5
완도	호린뒤	5/5	전주	호린뒤	0/4
구례	비/눈온후	2/4	군산	호린뒤	1/3
강진	호린뒤	4/5	남원	비/눈온후	0/4
해남	호린뒤	4/5	축산도	호린뒤	4/4
장성	비/눈온후	2/4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안바다	북서~북	1.5~4.0	북서~북	2.0~4.0
	남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3.0~5.0
남해	안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1.5~3.0
	남바다(동)	북서~북	2.0~3.0	북서~북	2.0~4.0
서부	안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3.0~4.0
	남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3.0~4.0

◇주간 날씨

날짜	28(수)	29(목)	30(금)	31(토)	1/1(일)	2(월)	3(화)
날씨	☀	☀	☀	☁	☁	☀	☀
강수량	-3/6	-2/5	-3/6	-1/8	-1/8	-1/8	-1/8

독감 확산...광주 초·중 7곳 단축수업

교육청, 조기 방학 권고

독감(인플루엔자)이 기승을 부리면서 광주에서 단축수업에 들어간 초·중학교가 7개로 늘었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신원중, 대자중, 하남중, 무진중 등 중학교 4곳과 월봉초, 풍암초, 성덕초 등 초등학교 3곳이 방학 전까지 단축수업을 한다. 단축수업은 교시마다 10분씩 당겨 실시하며 평소보다 1시간가량 앞당겨 귀가하는 방식이다.

단축수업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조기 방학과 달리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현재 독감으로 인한 단축수업에 들어간 학교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일선 학교에 ‘독감이 심하면 조기 방학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할 것’을 우선으로 권고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229개 학교에서 3113명이 독감에 걸렸다. 초등학교 116개교 1643명, 중학교 70개교 871명, 고등학교 41개교 591명, 특수학교 2개교 8명으로 초등학교에 독감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초등학교 86개교, 중학교 75개교, 고등학교 37개교 등 대다수 학교가 오는 30일 방학이 예정돼 이번 주가 독감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교육청은 전망했다. 학사 일정상 내년 1월 초에 방학을 하는 학교도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 20개로 파악됐다.

전남은 333개교에서 4499명(23일 기준)이 독감에 걸려 등교중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광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교가 30일 방학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무등산 계곡·황룡강변 불법영업 4곳 적발

수차레 행정처분 무시 불법 영업...상수원구역에 오수 방류도

무등산국립공원 계곡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수차레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무시한 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무등산 원호사 계곡 주변에 목재 데크·평상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자연공원법·식품위생법위반)로 A씨를 ‘구공판’(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 회부)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국립공원 계곡에서는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는데도 주막으로 신고하고 음식점으로 불법 용도 변경했다.

A씨는 이곳에서 20년간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했으며, 관계기관에 적발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불법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9차

레 적발돼 과태료나 벌금형을 받았지만 음식점 운영을 그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상수원보호구역인 무등산 제4수원지에서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오수를 배출한 혐의도 업자 B씨도 ‘구약식’(약식재판 회부) 처분했다.

검찰은 환경보전지역인 황룡강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한 업자 2명도 ‘구약식’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자들은 영업이 잘돼 불법을 무릅쓰고 벌금을 내면서까지 불법 운영을 계속했다”면서 “불법 건축물을 해체에 원상 복구하도록 하고 점검과 처벌을 강화해 환경보전지역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최초본 디지털 복원

일본 테이프서 추출...5·18기념재단 ‘오월2’ 오늘 공개

‘임을 위한 행진곡’ 최초본이 디지털 음원으로 복원됐다. 지난 1982년 4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포함 7곡이 수록된 테이프(닛폴이) 2000개 가운데 한 개에 담긴 노래를 디지털 음원으로 되살린 것이다.

5·18기념재단은 ‘임을 위한 행진곡’ 최초본을 수록한 오월노래음반 ‘오월2’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작된 음반은 과거 음원을 발굴해 복원하는 ‘기록음반’ 그리고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새롭게 편곡하거나 ‘전국 임을 위한 행진곡 제작 프로젝트’를 통해 촛불집회 현장에서 녹음된 노래를 담은 ‘기록음반’ 등 2장으로 구성됐다.

5·18 이후 현재까지 불리는 민중가요 24곡을 각각의 음반에 12개씩 담았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 최초본은 기록음반에 담겼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1년 소설가 황석영 씨가 광주시 북구 안암동 자택에서 백기완 선생의 시 ‘땀비나리’에서 가사를 빌려오고 전남대 학생이었던 작곡가 김중률씨가 곡을 붙여 만든 노래다.

당시 황씨의 자택에 모인 10여명의 문인은 ‘윤상원·박기순 열사의 영혼결혼식’에 바친 노래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고, 5·18 모든 희생자를 ‘임’으로 표현했다. 이들은 마이크 없이 기타와 카세



트 테크만으로 녹음 작업을 진행했다. 소리가 집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담요로 창문을 가린 채 노래를 불렀다.

오월노래음반 제작 총감독을 맡은 박종화(53) 작곡가는 당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오정복(오창규) 전 광주MBC PD와 작곡가 김 씨가 보관해온 일본 테이프에서 음원을 추출했다.

박 감독은 “최초본을 되살린 점, 11월 12일 광화문에서 100만 시민이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담은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5·18재단은 27일 광주 서구 쌍촌동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리는 ‘2016 오월음악과 함께하는 송년회’에서 오월 2 음반을 공개한다. /김형호기자 khh@

태영21병원 개원 5주년

박문경 초청음악회
| 전, 광주시향 첼리스트 |
바히르 챔버 오케스트라 협연

2017년 1월 19일(목) 7:00(PM)
태영21병원 세미나실

▶ 인공신장실(아간투석)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종합검진센터(전신 MDCT 보유) ▶ 입원실(46 bed)
▶ 당뇨병-감성신 연구소(국가공인) ▶ 아침 7:30분 부터 검진시작
▶ 유방클리닉(외과 전문의)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 의사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